

“광양, 철강·이차전지·물류 등 신성장거점으로”

NEWS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김영록 전남지사, 광양시 정책비전투어

K-첨단산업 심장…전남도, 미래 7대 비전 제시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관 등 지원도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광양을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성장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양 성황스포츠클럽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투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비전투어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강정일 도의원,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광양은 550리 섬진강이 만든 자연환경과 광양항, 포스코 등 산업이 완벽히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도시”라며 “가장 젊은 도시이자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고 철강·항만에서도 경쟁력 강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광양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K-첨단산업의 심장, 글로벌 해상시대 신성장거점 광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철강산업 혁신, 글로벌 친환경 철강도시 선도 △세계로 도약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 스마트항만

구축,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광양만권 교통허브 △천만관광객이 찾는 K-관광도시 △청년 벤처창업 허브도시 △고소득·친환경 광양형 미래농업 육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구봉산·섬진강권역 개발사업 추진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때문에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다”며 주차장 확장과 회전 교차로 설치, 안전 난간대 정비에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근휘 광양시 상이군정회장은 “광양시 보훈회관은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구축 건물로 2개 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등 노후했다”며 보훈회관 신축이전 사업비 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병만 광양시 관광협의회장은 전남도 무형문화유산인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보훈회관 경우 도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광양시 성황스포츠클럽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 참석해 토론회를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년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수관 건립은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 우선 철거비와 설계비 1억6000만원은 협의가 된 상태로 추후 건립사업비는 국가유상청을 통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광양만 환경포럼 소속 주민 허형태 씨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관관리권한을 시군에 재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안성수 광양시벤처기업협의회장은 유류부지를 활용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 판매 대금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계통문

제 해소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광양시가 이차전지 선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성수 광양시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건의도 나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시 ‘디어마이광주’ 전면 개편 개인화 콘텐츠·앱 업그레이드

광주시는 시민의 문화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 ‘디어마이광주’는 공연·전시·축제·교육 등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국 최초 문화예술 커뮤니티형 공공 플랫폼이다. 예술인과 시민, 문화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어마이광주’는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설했다. 현재 주간 문화정보 콘텐츠 ‘광주 이번주 놀거리’, 문화행사 리뷰 공유 커뮤니티 ‘광주문화 리뷰투어’, 예술 콜라보 프로젝트 ‘예술가들 찾습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규 기획 콘텐츠인 ‘디마광 왔다감(문화체험 인증)’, ‘광주 아트폴코스(문화나들이 추천코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5·18 기념행사’와 같이 시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특화 카테고리로 구성해 주요 문화행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모바일 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앱 푸시 및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요 문화행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친환경 쌀,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대상’ 수상

청정 품질·맛 19년 연속 학교급식·수출 확대 등 성과

전남도는 24일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에서 전남 친환경 쌀이 19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1999년 제정된 소비자 브랜드 평가 상이다. 전국 20~59세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학계 전문가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종합해 최고 명품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 친환경 쌀은 2006년 첫 수상 이후 무려 19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선택을 받아, 명품 친환경 쌀 브랜드임을 각인시켰다.

이는 품질, 안전성, 신뢰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결과로, 전남 친환경 쌀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특히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 조성, 벼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에서 전남 친환경 쌀이 19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제공=전남도

가공건조저장 시설 지원 등 주기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품종부터 도정까지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유기농 벼 면적이 전국 면적의 71%로 청정 지역의 유기농·저탄소 쌀 생산 1번지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전남 친환경 쌀은 서울, 제주 등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정도로 품질과 안정성 측면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난해 CJ프레스에서 단체급식소 40여 곳에 전남 친환경 쌀 200t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프랜차이즈 암셀김밥에 영암 유기농 새청무쌀을 매월 50t 공급해 국내의 유통망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친환경 쌀은 물론 대표 농수축산물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를 통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대차그룹, 광주미래산업엑스포서 신기술 공개

수직이착륙 UAM·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전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 참가해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광주시가 주최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산업 융합 전시회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한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 테크관, 현대차관, 기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테크관에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간(SDF) 구축의 핵심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을 선보인다.

미래산업융합포럼에서는 AI융합 모빌리티 신기술, 전기차 화재예방 서도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관에는 지난 10일 판매개시된 ‘디올 뉴 벵소’와 현대차 전동화 플랫폼 심 SUV 모델인 ‘아이오닉9’, 현대 N브랜드



최초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가 전시된다. ‘디올 뉴 벵소’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지난 2018년 3월 첫 출시 이후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다. 기아관에는 기아 PBV 시리즈 첫 번째 모델인 PV5, 기아 최초 전용전기차 세단 EV4,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이 전시된다. 정현아 기자 aura@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책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운천1길 35

T. 1600-7953